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며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9. 3. vol. 23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수있습니다.

기사내용 미리보기

- 01 성시화
다음세대를 향한
믿음의 선포
- 02 특집
3.1운동과 기독교 국가관
- 03 칼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 04 기획
3.1독립운동과 기독교회
- 05 선교
엘살바도르로 가면서
- 06 선교
베트남 비전트림 단기선교
- 07 통일
북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 08 다음세대
군선교
- 09 사실
- 09 건강이야기
홍역이란?
- 10 기관
강원CBS-하나님께서서
원하시는 건축 사옥
- 11 교계소식
- 12 후원자명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에서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재현하다.

성시화

다음세대를 향한 믿음의 선포

물질만능주의와 죄로 인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다음세대들이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다음세대가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들이 왜 흔들리고 있고, 다음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음세대의 근본적인 위기는 교인 수의 단순한 감소 그 자체보다, 교회 안의 세대 간 불균형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세대 균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신앙전수율' 이 그보다 더욱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앙전수율'이란 부모가 믿는 종교를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이 '신앙전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전도나 양육은 고사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노력마저 게을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신앙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전 공동체가 교육과 목회의 이분법을 넘어서 그 둘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강화하는 가족공동체의 회복과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리더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교회는 복음에 대한 확신, 열정과 함께 다음세대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수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세대의 위기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이다. 근

본적으로 큰 문제는 다음세대의 영성훈련을 수련회나 캠프에만 의존하려는 현실이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보다 학업을 더 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각 교회마다 방학기간 캠프나 수련회를 준비하며 겪는 큰 난관이 바로 다음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과거 학부모들은 수련회 기간이면 어김없이 자녀들을 수련회로 보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영성훈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세대 수련회와 캠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녀, 학부모, 교사 함께 배움을 나누는 교육공동체, 예수님 안에 화목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다음세대의 두 가지 문제를 나누었지만, 셀 수도 없이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행 2:42)". 기성세대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세대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할 것이다. 그 옛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를 떠올려야 할 때이다. 그때는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다시금 기성세대가 눈물으로써 호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다음세대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지역, 민족, 나라, 세계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글. 이수형 부이사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순복음춘천교회)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종익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120 302호
T033-256-1260 F033-257-1260
E-mail : holycc1972@daum.net

3.1 운동과 기독교 국가관 (롬13:1~7)



지난 3월 1일(금) 저녁7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담임목사)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종익 목사) 주최로 드러진 "100주년 3.1절 연합예배" 에서 선포된 "박용규 교수(총신대 역사신학)" 의 강의를 특집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 되어 독립의 염원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3.1운동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연령과 성별, 지역과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 독립의 염원을 세계 만반에 타전한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3.1운동의 이 함성,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함성이 지금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졌을 때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철원을 시작으로 5월 9일 양양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전역에서 3.1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3.1운동이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33인 서명자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권을 상실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네트워크 되어서 3.1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일제가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한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위대한 사건인 3.1운동을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으켰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놀라운 역사성을 이 시대에 계승해야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그 시점에, 당시 그리스도인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이 사회 속에서 통일의 그날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

기독교인에게는 2가지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윤리입니다. 사회 윤리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그룹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한 그룹은 권세에 아부한 타락한 이들인 헤롯당이고, 또 한 그룹은 정부에 대해서 항거했던 열심당이고, 또 한 그룹은 소극적이고 금욕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던 에센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국가관과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보여주었던 국가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도피적이거나 경멸적으로 현실을 봐서는 안 된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섭리자이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57년도에 고린도교회에서 이 말씀을 기술했을 당시 로마제국의 황제는 폭정의 황제로 알려진 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이원론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하다는 구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악이 존재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선한 정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막스 웨버의 말대로 개신교는 자본주의의 뿌리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국민적인 저항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악을 행하도록 국민에

게 요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에서 배도하도록 요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백성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정부의 잘못에 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국가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박해할 때, 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에게 박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성은 집권자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집권자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들의 방종에 대하여 그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미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들의 폭정을 못 본체 한다면,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보여줍니다. 정부에 편승하는 헤롯당도 잘못되었고,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열심당원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초연해서 광야에 사는 에센파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정권을 인정하고 세금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 정권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반기독교적이고, 국민을 위한 선한 정권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항거해야 할,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평안 안녕 질서를 정권을 가진 권세자는 그렇게 인도해야 할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선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선한통치를 하지 않았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정권에 대해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크롬웰의 혁명전쟁, 오렌지궁의 윌리엄의 화려 독립전쟁, 우리나라의 3.1운동은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가를 찬탈하고 백성에게 폭정을 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국민적인 저항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토지를 강제를 빼앗고, 항의하는 사람을 공개처형하고 일본 자본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자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하고, 토지개혁이란 이름으로 자료가 없는 토지는 정부가 다 수용하면서,

우리의 주권, 재산권, 기본권을 빼앗은 상황에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자 국민적인 저항이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소식들은 외국에서 흘러져있는 의식있는 젊은이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우리의 주권을 미국에 타전하고 월슨 대통령에게 호소하며 독립의 자유를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의 선조들은 건장한 국가관, 그리고 일본정부에 기본권 자유를 빼앗고, 무단으로 압제했을 때,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를 매질하고 런치를 가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풀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와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일깨웠음을 말합니다.

국민은 정부에 순종해야 하나, 무조건적인 순종

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르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권세자들을 세운 것이지, 권세자들을 위해 백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위는 합법적이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3.1운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은 비폭력 시위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총칼을 통해서 수 만명을 투옥시키고 상처를 입혔지만, 우리의 백성은 비폭력 시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이런 평화적인 시위는 드물 것입니다. (중략)

3.1운동은 기독교가 이 민족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윤치호 작사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은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

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적인 기독교 국가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3.1운동은 기독교가 이 민족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정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실패가 아니라,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금연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청소년 운동이 일어나고,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YMCA YWCA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끝없이 통과하고 있는 그 때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정리 / 이은정 사무국장

칼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금수강산” 산불로 부터 보호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지가 엇그제 같은 데 어느덧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고 개구리가 눈을 뜬다는 경칩(驚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흔히들 이 기간의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매서운 추위가 잠시 찾아오지만 우수가 지나면 이미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돌는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우수를 기준으로 첫 5일간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를 마련하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봄기운을 피하여 북쪽으로 날아가며 이때쯤이 되면 봄은 어느새 완연해지고 경칩이 오기 전 마지막 5일간에 초복에 썩이 든다고 한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며 봄바람이 불어온다. 훈풍을 타고 만물이 생동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좀 더 빨라지면 반갑지 않은 황사와 함께 우리는 매년 악몽처럼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또 막아내야 한다.

우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2만569km)의 82%(1만6866km)가 산림지역으로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

지하고 있다. 산림은 우리에게 임목이나 임산물을 제공하는 1차적 기능 외에도 산소의 공급, 대기의 정화, 토사의 유출방지, 수원의 함양, 산림휴양 및 산림경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대가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산림자원이 어느 한 개인의 작은 실수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매년 봄철이면 예고 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성 산불은 총 6건으로 이중 4건의 대형 산불이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하였다. 1996년 발생한 고성산불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산림 3천762ha를 태웠고, 2000년 4월 7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4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은 물론 경북 울진 일대 산림 2만 3천794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낙산사를 집어삼켰던 2005년 4월 양양산불의 산림피해면적은 973ha에 달했고, 2017년 5월에는 강릉과 삼척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총 1천17ha에 이르는 산림이 사라졌다. 산불은 1차적 피해 외에도 그 후유증이 심각한 재앙이다. 복구비용은

물론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면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엄청난 추가 피해를 동반한다. 국내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산불은 산불 흔적만 지우는데 5년이 넘게 소요되었고 산림 복구에만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곳곳에 상처가 남아 있다. "산불로 사라진 숲을 회복하려면, 황무지가 숲으로 변한 세월만큼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2009~2018)발생한 산불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총 431건 중 입산자 실화가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2.9건(14.7%), 쓰레기 소각이 60건(14%)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심각한 재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몽의 산불!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대규모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고, 허리케인, 태풍, 토네이도 등의

자연재해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 폭염 폭설 등을 비롯하여 폭발, 사고, 산불 등 지구촌의 재난은 상상을 초월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류가 직면하는 재앙은 환경을 파괴한 인간이 돌려받는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하는 권한을 주셨지만 관리란 잘 보호하는 것이지 없애거나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살아남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인 동시에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금년 봄에는 나라사랑 하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작은 것부터 몸소 실천하는 애국시민의식 함양에 다 같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 김상철 권사 (신성감리교회, 전삼척·원주·인제소방서장)

3·1독립운동 100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②

3. 1독립운동과 기독교회



29세 청년 최남선의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에 대한 회고

"독립선언이란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지 못했기에 3·1운동 독립선언서 작성을 위해 참조한 문헌이 전혀 없었고, 그러므로 이 독립선언서는 완전히 '독창적'이었다"면서도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사람인데다가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고 회고한 바 있다.

3·1독립운동을 주도한 기독교회

3·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족의 생존권 투쟁 등 각계각층이 결집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그 중심에 교회 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이만열은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에서 "①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가 있으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② 그곳에 천도교회가 있으면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제휴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으며 ③ 기독교회나 기독교계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천도교회 단독으로 혹은 유생·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고 적고 있다.

기독교계통의 참여도에 대하여도 이만열은 "초기의 1,200여 회의 운동 중에서 그 주동세력이 뚜렷한 340회를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311개 지역이 된다. 그 중 특정계층이나 세력이 주동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는 기독교인이 78개 지역이고 천도교인이 66개 지역이며,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공동으로 주도한 곳이 42개 지역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주도한 지역의 주동세력이 뚜렷한 311개 지역의 25~38%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3·1운동 후의 체포·투옥자의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그 해 6월 30일까지의 일제 통계에 의하면 3·1운동과 관련하여 투옥된 사람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2,087명으로 이는 전체의 22%가 넘는다. 또 1919년 12월 말까지의 일제측 복역자 통계는 1만 9,525명인데 이중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당시 한국인의 인구와 관련시켜 보면, 기독교회와 교인들의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 이 때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는데, 기독교인은 1918년말 현재 21만 2,70명(장로: 160,913, 북감: 41,044, 남감: 10,740)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인구의 1.3%를 차지하였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3·1운동의 전체적 역량의 20% 이상이 당시 한국 인구의 1.3%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니, 3·1운동에 바친 기독교인들의 민족적 정열과 항일투쟁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이 때문에 3·1운동에 뒤따른 일제의 기



학살사건 이후의 불탄 제암리교회 현장
독교에 대한 보복으로 47개 교회(총독부 추산)가 소실되고 화성군 제암리교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교회와 국외의 교회들이 만행의 피해를 입었다.

1919년 4월 15일,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가 이끈 일본군들은 발안 장날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매질이 있었으니 사과하겠다고 속여, 마을의 15세 이상 남성들을 모두 제암리교회로 모이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제암리교회에 모이자 출입문을 폐쇄하고 창문으로 총을 난사하며 예배당에 불을 질렀다. 탈출하는 이들에게 총탄을 퍼부었고 일하다가 달려왔던 부인 2명도 사살하여 당시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이 23명, 뜰에서 죽은 사람은 6명 총 29명(기독교신자 20명, 천도교신자 9명)의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당시 학살과 방화로 인하여 지옥으로 변한 제암리를 가리켜 "예수 믿다 망한 동네, 예수 믿다 망한 집"이라는 말이 퍼져 나갔으니, 희생자 중 남자 21명 가운데 안씨(安氏)집안에서 15명이었고 한 가정에서 4명까지 죽임을 당했으니, 지나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만행은 만주에서도 저질렀으니, 이른바 '간도참변' 이다.

간도참변(경신참변) 속의 장암동 예수마을

이 간도참변은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이 그 보복의 일환으로 감행된 것으로 한인사회, 항일단체, 학교, 교회 등을 초토화시켰다. 이 간도참변으로 한국인 3,700여 명이 피살되고(미확인 사망자까지 포함 3만여 명 추정) 3,500여 채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가장 참혹했던 사건은 '장암동 학살사건' 이다. 연길현 장암동의 주민 대부분은 기독교신자들이어서 장암동은 '예수마을' 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1920년 10월 30일 용정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4사단의 스즈키(鈴木) 대위는 군인, 경찰 등 75명으로 구성된 토벌대를 거느리고 남양평수비대와 합세하여 새벽에 장암동을 포위한 후 청장년 33명을 반일부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가두어놓고 불을 질렀다. 특히 28명의 기독교인을 세워 놓고 소총 사격 연습의 과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간도참변(경신참변) 때 작도로 참수하는 장면과 방화로 소실된 가옥 모습

당시 간도지역의 일본군은 민간인을 작두와 일본도로 참수하고, 생매장시키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사지를 잘라 죽이고, 얼굴과 피부 가죽을 벗기고, 여성을 겁탈하고, 양민 수십 명을 묶어서 교회당에 붙여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다. 또한 간도 대학살 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남은 양민에게 참수현장을 직접 목격시켜 두려움에 떨게 하여 독립군을 지원하거나 독립운동을 할 의지를 꺾어버렸다.

3·1운동은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감리교 신자)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구성원 8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기억할 만한 일이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10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3·1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3·1운동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한국인들의 전국적인 독립투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몸된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의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금찬 김미자 선교사는 1989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총회—SIM 소속 선교사로 에콰도르, 볼리비아, 멕시코에, 201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JDM 본부 사역, 2019년 2월에 JDM-GMS 소속 선교사로 춘천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의 후원으로 엘살바도르로 파송 받았습니다. 본 신문의 “음악 이야기” 코너를 맡아 주셨던 김 선교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남긴 파송 인사의 글을 게재합니다.

엘살바도르로 가면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다시 생각 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30년 전 처음 선교지로 떠날 때에는 가는 곳이 어떤 곳일까, 집은 있을까, 원시인처럼 동굴이나 움막에서 사는 것일까, 아기를 안전하게 누일 곳이 있을까, 동물이 와서 해치지 않을까, 물은 있을까, 흙탕물을 가라앉혀 마시고, 씻지 못한 검은 얼굴과 새집 같은 머리 털을 하고 사는 것일까? 등등... 선교사는 순교도 해야 하니 어찌 대처할 지 상상하며 맘껏 오버하며 떠났었습니다.

가난하고 순박하고 눈이 큰 그곳, 남미 사람들은 꼬레아에서 왔다는 작은 우리를 자기네 인디언들과 닮았다며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출석하는 한 영혼, 영혼이 어찌나 아기같이 조심스럽고 사랑스러웠는지. 그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송골송골 피어나는 감사는 그침이 없었고 “무릇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라는 성경말씀은 현실로 튀어나와 살아 역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24년 사역하다 귀국하여 온누리교회 부서 사역 중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송구하고 감사하고 재충전 되고 너무 잘 먹어 비만

이 왔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듯 느껴지더니 6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마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작년 1월 초 “올해만 있고 연말에는 사임하고 선교지로 꼭 돌아가야겠어요.” 미리 다짐하지 않으면 또 한 해를 놓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아닌 듯 하나 터프하고 두려움도 없고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지내다 실수도 잘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는 남녀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 노방 설교도 했었지만 온누리교회에 있는 동안은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니 두 날개를 더 짙아 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저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가장 값지고 후회 없는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종들임에도 또다시 파송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는 사명을 이루심에 부합하여 저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9년 2월

김금찬 김미자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영적 분별력을 주사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고 세워 동역하며, 그 땅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2. 선교사님 가족 모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현지어(영어, 스페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세계 최악의 범죄국가인 엘살바도르에 선교사님 가정이 축복의 밑알이 되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3. 엘살바도르의 정치 부패, 기업 운영난, 사회 불안 지속(살인, 마약 등)과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 되며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베트남 비전트립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할렐루야!!

베트남 비전트립 단기선교를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의 집짓기”, “시각장애인시설 위로 방문”, “성경학교 및 전도집회”, “교회탐방” 등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사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새벽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오후 4시쯤 베트남 판선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환영을 받은 후 바로 미니버스에 올라 5시간을 더 이동하여 드디어 선교활동 장소인 므이네 마을에 도착 하였습니다. 마을 도착시간은 거의 밤 11시가 다 되었고 밤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 짐 정리한 후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 회의와 기도를 한 후 숙면을 취했습니다.

둘째 날, 빈판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예배와 기도를 하고 쌀과 다양하게 준비한

식료품 및 과자를 두 줄로 앉아서 포장하기 시작하였고 이곳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선물 포장을 마친 후 부채춤과 태권무 그리고 베트남어 찬양을 연습하였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공연복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나타난 개미떼에 우리 아이들은 혼비백산 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빈판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영리 즉 영혼구원에 대한 설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신 빈판교회 목사님께서 손을 들자 같이 손을 든 아이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손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하였습니다. 개미군단의 복병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준비해 간대로 침착하게 부채춤공연과 태권무, 베트남어 찬양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을 신나게 춤을 추며 함께 불렀습니다. 300여명 가까이 모인 아이들에게 준비한 쌀과 식료품, 과자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빈판교회의 성도님 가정에게 선물한 “사랑의 집짓기” 페인트칠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땀벌에 몸을 맡긴 채 열심히 꼼꼼하게 칠하였고, 집주인인 어린 부부는 미안

함과 고마움의 얼굴로 밝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넷째 날은 박순종 선교사님이 후원하시는 현지 교회탐방과 메콩강 탐방이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사역하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다섯째 날은 사역지 탐방으로 시각장애인 및 고아 공동체시설을 위로방문 하였습니다. 30여명이 거주하는 시설의 대표되시는 분은 우리일행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인데 무엇이 그리 감사하다는 말인지..... 연신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사회주의체제 이다보니 준비해 간 선물을 드리고 조용히 합심 기도를 하고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15명의 비전 트립팀은 한 사람도 아프거나 어려움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희 비전 트립팀을 위해 현지에서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박순종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전에 다니던 직장 대표께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 해주신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은경 권사
(온누리교회)



안녕하세요?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온 올해 중학교 1학년인 안치윤입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은 우리나라 보다 국토 면적은 크지만, 교회는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수는 왜 적을까? 우리가 꼭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도록 전하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고 선교사님과 버스에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들로 꽂찬 도로와 정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선교활동 기간에 현지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70살이신 목사님께서 힘드실 수 있는 연세이지만, 앞으로 4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갔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부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할 일을 다 하시고 오토바이도 운전하시고, 돈도 벌어서 시각장애인 공동체와 고아원을 운영하신다는 것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엔 많은 아이가 버려져 고아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 고아들이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이번 베트남 비전 트립을 통해, 저는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고, 베트남 사람들과 ‘안녕하세요(신짜오)’ ‘감사합니다(깜언)’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니 베트남 비전 트립을 잘 갔다 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다면 베트남에 다시 가서 전도하고, 박순종 선교사님처럼 베트남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5박 6일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안치윤 학생
(온누리교회, 우석중학교 1학년)

"북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탈북사역자 김복한 목사

지난 3월 3일(주일) 저녁7시에 석사감리교회 (손학균 담임목사)에서 열린 홀리클럽(조정일 회장)이 주최한 북한 세미나에서 선포된 간증 설교를 정리합니다.

북한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

대한민국에 와보니, 한국의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상상 이상으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많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저는 궁금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제 눈을 하나씩 열어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북한 땅에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존재를 두고 10년 단위로 변해왔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기괴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이념만 다를 뿐이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김일성의 후계자로 선택된 김정일이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김일성 절대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작업은 10년간 진행이 되었는데, 성공한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절대화 작업은 김일성 위치를 법위로 올린 초법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일성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상과 초상화를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우상화 핵심은 김일성을 국가 위로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데, 김일성이 인민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을 위해 일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당도, 군대도, 인민도 모두 김일성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야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알았습니다. 북한은 완벽하게 이 일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가면서 신격화 작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김일성을 민족과 온 세상의 태양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 조항 정치용어가 아니라, 헌법 1조 1항인, 민족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존재를 두고 10년 단위로 변해왔습니다.

북한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이런 북한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기적이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북한은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절대화 작업 시작된 1970년대 중반부터,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1년에 3%, 4%, 그다음에 5%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생산량은 들쭉날쭉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것처럼 0%가 될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 수확량이 줄어드니, 다양한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주체농법이란 농사법을 개발하였고, 비료로 좋다고 하여 산에 있는 부엽토를 퍼다가 농사짓느라 전쟁을 치르듯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분이 좋은 비료라고 1인이 인분 1톤을 가까운 농장에 바치는 일도 했습니다. 땅이 푸석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보고에 의해 전 국토를 통째로 뒤집는 일을 3, 4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일성의 위치는 계속 올라가고, 수확량은 계속 떨어져 농업 생산량이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나는 안죽어 라고 하는 때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배급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대량 아사 사태가 일어나 1990년대 말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떨어져서 몰살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자료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기록된 한반도에 붙어온 태풍 기록 자료입니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태풍이 북한으로 한 번도 안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는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고 홍수도 방어하기 위해 댐 공사를 잘해냈습니다. 태풍이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어 댐의 물을 다 빼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십 리 밖에서 물을 길어다 한 포기 한 포기 물을 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농사를 그렇게 짓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1990년도부터 2000년을 보니, 1999년 8월에 딱 한 번, 파올이라는 태풍이 북한을 지나갔습니다. 북한으로 간 게 이상해서 1999년 당시 정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전 해인 1999년에 쌀을 많이 보냈는데, 쌀 못지않게 비료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비료를 많이 갈아 풍년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다는 예고가 나오니, 댐에 물을 뺐까 말까 하다가 김정일이 물을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올라가 큰 홍수가 났고, 예전에 뒤집었던 땅이 모두 바다로 쓸려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북한을 다시 찾을 거야"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왜 그리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잘 따르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며, 축복의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전히 뒤집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리라고 4배가 더 긴 저주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문자 그대로 북한에 다 나타났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북한은 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한 개만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모 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농사를 지으려 애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사람을 사로잡는 법으로 배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도,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하게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그들의 신이 되었고,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일성이 주는가? 그렇다면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북한의 흉년은, 땅 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고기가 안 잡히고, 산에도 열매가 없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는 음성인 자연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1999년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묘지를 위해 8억 7천만 달러를 썼다고 TV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 도시마다 많은 아이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주민들이 3년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일 후, 북한 전역의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였던 신앙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국 동시에 허물어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빼앗겼던 영광을 허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북한을 바라보며 울면 안되겠니?"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나랑 같이 북한을 바라보며 울면 안 되겠니?" "왜 하나님이 우실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옥 가잖아, 여기서 돌이켜야 해," 아픈 마음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북한을 다시 찾을 거야" 라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바위 같은 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에게 돌아갔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북한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 / 이은정 사무국장

군선교

진중세례를 통한 선교



2019년 2월16일(토)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이 되었고, 내일모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 이거를 강원도 최진방 신병교육대 끝짜기는 영하의 냉기가 감돈다. 오늘 이곳에서 진중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받는 용사들이 303명이나 되었으며, 함께 예배에 참석한 기간병들과 동료 용사들 그리고 세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온 성도들, 가장 멀게는 대전에서 와 준 복음가수 박○○, 인천에서 오신 짜장선교회, 서울, 수원, 평택, 안산 등등... 500여명은 족히 되었다.

오후 1시 반부터 입장하는 용사들의 행렬이 마침내 800석 규모의 성전 안을 꽉 채웠다.

박○○복음가수의 인도로 찬양을 함께 배우며 따라하는 용사들의 몸짓은 가히 열광의 용광로와 같았다. 30분 가까이 찬양이 이어지고 예배와 세례, 예배 중 설교는 수원에서 오신 목사님의 '뜻기에 나타난 복음'이란 제목으로 모든 병사들이 아멘으로 합창을 했다.

세례식 후에는 다양한 순서로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신병교육대 수료 후 자대에 가서 어떻게 병영 생활에 적응하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배 군종참모를 지내신 분이 나와 아주 간략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며 격려와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성전 안에서 예배와 세례가 집례 되는 동안, 성전 밖 뜰에서는 500여명이 먹을 짜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짜장면 요리 전무가이신 집사님 혼자서 가마솥 3개를 이동식 솥단지에 걸어놓고 물을 끓여가며 면을 삶고, 짜장을 볶으며 식판대에 단무지와 젓가락, 그릇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용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드디어 모든 식이 마치고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배식을 위한 도우미 병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사분란하게 배식이 진행되었다. 밖은 너무 추워 배식을 받은 용사들은 그릇을 들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뜻밖의 사제(私製) 짜장면을 매우 흡족하게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하며, 군 생활

의 첫 번째 경험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된 것이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전 문 앞에서 준비된 빵과 음료, 작은 성경책과 세례를 기념하는 증서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받으며 흡족한 표정으로 흠뻑 젖어 갔다.

한국교회는 약130여 년의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다. 1880년대 후반부터 1910년 기간 선교사들의 입국과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과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고난과 가난,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쳐, 1990년대 민주화시대를 겪어왔다. 그 중 한국교회는 1970년대의 폭발적인 전도폭발을 거치며 1,000만 성도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습격과 1969년 9월1일 무장공비가 속출하던 그 때에 1군 사령관인 한신 장군이 1인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군신자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화로 1972년5월29일 백낙준 목사에 의해 "전군 신자화 후원회"가 설립된다. 그 첫 후원 사업으로 1973년4월1일 육군20사단에서 첫 합동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1974년에는 100만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기도하며 민족복음화를 부르짖게 되었다. 마침내 1976년6월26일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 휘호를 전군에 하달하며 선교사역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그 후 한국교회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으나 민주화와 인권운동 등 그리고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저출산의 여파로 선교와 전도는 정체상태와 침체로 전도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못한 상태로 절박하게 된다. 급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개척교회가 설립되지만 교회가 설립되는 만큼 한 편으로는 문 닫는 교회들이 매일 속출되고 있다. 특정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마다 부흥을 멈추고 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게 되었고, 각종 학원 전도와 직장선교등도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한 저출산과 인권운동 등으

로 회복이 매우 저조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곳은 군대뿐이었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유일한 곳이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군종병과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오는 용사들 중 사회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용사는 3%도 안 된다고 한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고 오는 젊은이들은 거의 0%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군에 머무르는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을 못 듣거나 교회에 축적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 교회에 다닐 확률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군 선교는 속성과 과정이다. 일단 군에 오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다. 길거리 전도보다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할 것이다. 유럽사회가 인구 부족으로 국가의 존망마저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랍권과 아프리카 권은 많은 자녀들을 낳아 유럽으로 이민시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확장시키 나가고 있다고 한다. 군에서 기독교인을 만드는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진중세례다. 일단 세례부터 베풀고 그 후 그들을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신앙으로 양육한 후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군은 특성상 군에 입대한 용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한국교회에 주신 자원을 비롯한 모든 부를 쏟아 부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 올려야 한다. 매년 25만여 명의 새신자를 얻을 수 있는 군선교사역, 이 일을 후방의 한국교회 모두가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번 세례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이다.

글. 최남식 목사

(D.Min, 화천명성교회,총회 군선교사중경회장)

사설 '100년 전 삼일 운동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들' ... 오늘에는 누가 앞장 설까?

연합예배에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나오는 숫자가 저조한데, 이단 사이비 종교를 대항해서 투쟁해야 하는 일에 과연 나올까요?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춘천의 500여 목사님들과 700여 장로님들 그리고 5만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춘천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알잡아 보았나요?

저는 김유정역이 있는 신남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제 성격에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너무 용기 없고 소극적이구나. 너무 우울 안개구리 같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교는 무조건 춘천을 떠난다.' 라고 다짐했고, 마침내 대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춘천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일반대학교, 신학대학교를 다 마치게 하신 후에, 춘천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 성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 성격이 다른 도시에서는 건디기 어려운 성격인 것을 아시고, 여기서 목회하게 하겠다고 믿고 한 편 감사하며 성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용기 없고 소극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용기 없고 소극적인 성격'에 만족

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내 교회 안에서나 잘하지 뭐, 연합사역까지 모두 할 필요가 있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눅 11:42)".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십일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종교적 형태 하나만 취하고, 그것으로 다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거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트렌드가 교회에 유행입니다. 찬양과 경배라고 합니다.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 삶의 현장에서 탈세와 비리와 뇌물과 비방과 이데올로기와 교통위반과 거짓말과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하신다면 대단하다고 칭

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교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사역'도 행하고, '저것도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사역'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작동되어 소극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 요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나 이래도 괜찮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서는 춘천의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춘천의 500여 목사님들과 700여 장로님들 그리고 5만여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춘천시와 강원도와 대한민국, 저 북녘 땅까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 김종익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춘천광명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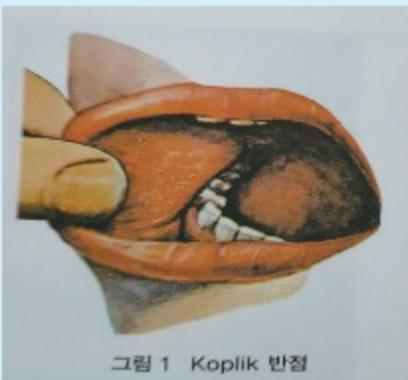


그림 1 Koplik 반점

홍역은 우리나라에서 제2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으로, measles virus에 의해 전염되는 특징적인 발진을 동반하는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1~2세에 많은 감염이 되는데, 열과 전신에 생기는 급성 전염병으로 중이염, 폐렴의 합병증 등 2차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홍역은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홍역에 걸린 환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되거나 호흡기계를 통한 비말감염 또는 오염된 물건에 의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을 쓴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다면 홍역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잠복기는 10~12일이며,

전염력은 발진이 나타나기 6~7일 전부터 나타나고, 2~3일 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격리는 환자와 접촉 후 7일부터 발진 후 5일간까지 필요합니다. 증상으로 고열, 전신무력감, 기침, 콧물, 결막염, 눈부심 등의 전구 증상이 3~4일간 계속 됩니다. 초기에 가장 특징적인 홍역 특유의 코플릭(Koplik)반점이 발생합니다.

질병 발병 후 3~5일째 피부발진이 생깁니다. 홍반성 구진상 발진이 귀 뒤에서부터 생긴 후 얼굴, 목, 팔과 몸통, 사지로 확산 됩니다. 피부 발진이 3일간 지속된 뒤 소실되기 시작하고, 발열은 감소하게 되나 이 시기에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치료로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 요법은 없고, 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과 기침, 고열에 대한 대증 요법을 합니다. 세균성 합병증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며, 거대 세포성 폐렴의 경우에는 대량의 감마 글로불린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이전에는 소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이었지만, 2001년 대유행 이후로는 환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역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이 된 건 198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스레 두 번을 맞는 데다, 2차 접종이 들어온 게 1997년이라서 20대와 30대에서 조금씩 면역이 낮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모두 면역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가 홍역 퇴치를 선언한 이래로 우리는 줄곧 홍역의 위협에서 벗어난 청정지역에 사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로인

해 2014년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홍역 퇴치를 인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역(안산, 대구에서 홍역 집단 발병)은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많은 가운데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홍역 청정 지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역 확진 환자 중에서 홍역 유행

지역을 다녀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홍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들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유행 중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여 명이 걸려 홍역 백신 접종 개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홍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부모들의 백신 불신을 믿지 말고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또 아주 많은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안 받아서 홍역 비상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며, 적은 수만 접종을 안 받아도 빠르게 확산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브라질에서 십수 년간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홍역과 소아마비가 돌아오며 예방접종 거부는 없어졌던 병이 다시 유행하게, 아니 더 강하게 돌아오게 하는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땅도 넓고 더운 지방이라 병이 유행하면 금세 퍼져서 이를 막고자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지난 1990년대를 끝으로 모두 퇴치했고, 무료 예방접종과 보건 의료진의 노력으로 없었는데,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퍼지며 혼도니아주(브라질)에서는 200건의 발병과 이중

건강이야기

홍역이란 무엇인가? 왜 근절되지 않을까?

강원CBS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옥 건축”

강원CBS는 “우리도 CBS를 듣고 싶다”며 정부 당국에 호소와 탄원으로, 때로는 강력한 압박으로 ‘방송국 설립 허가’를 요구한 춘천 지역 수많은 성도의 성원과 기도의 결실로 1995년 5월 첫 전파를 발사할 수 있었다. 춘천시 금강로 120 지상 5층짜리 ‘춘천와이신협’ 건물의 4층과 5층을 빌려 강원 지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해온 지 어언 24년이다. ‘춘천CBS’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2015년 12월 원주 방송센터의 문을 열면서 이제는 강원 지역 대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강원CBS’로 변모했다. 그러나 현재 사옥 상황은 강원CBS의 확장된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비만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샌다. 스튜디오 천장은 와르르 떨어져 나가고 24년간 사용한 콘솔은 내려앉기 직전이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낡고 오래됐으니 새 사옥을 건축해야 할까? 허물어진 곳은 보수하고 낡은 장비는 교체하면 그만이다. 사옥을 새로 짓게 되면 관리비 증가와 배 이상 늘어나는 감가상각비 등 지금도 재정 자립이 버거운 강원CBS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 사옥 건축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다. 하나님께서 강원CBS 새 사옥이 건축되기 원하신다. 새 사옥이 지어져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기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교계와 하나 되는 선교기관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24년 전 춘천CBS 개국처럼 이번 새 사옥 건축 역시 지역 교회의 기도와 열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사옥 신축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추진하는 새 사옥 건축 인지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 칠전동 사옥 부지 매각이다. 강원CBS 새 사옥은 춘천시 도시계획상 중점개발부지역인 서면 일대에 건축된다. 강원CBS가 서면 새 사옥 부지 분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칠전동 부지 3.3㎡당 가격을 시세보다 30만 원이나 더 비싸게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 이런 조건에 매각이 이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속절없이 수개월 시간만 흘러갔다. 강원CBS 직원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

사님, 직원들의 가슴을 가장 크게 울린 봉헌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작은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 조의금을 건축 헌금으로 낸 한 어머니였다. 큰딸과 함께 강원CBS를 찾은 어머니는 작은딸 장례를 치르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방송으로 들었던 강원CBS 사옥 신축 얘기가 마음에 떠오르면서 봉헌 결심을 했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며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 모습에 직원들 모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나님께서 진정 강원CBS 새 사옥 건축을 원하신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이었다.

강원CBS 신사옥은 춘천시가 서면 일대에 조성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안에 들어선다. 3031㎡ 대지 위에 건축면적 793㎡, 전체면적 1355㎡의 지상 2층 건물이다. 새 사옥에는 기독교선교센터도 들어서며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서화운동본부, 군선교연합회 등 교계연합기관 사무실이 상주해 지역 교계 허브 역할도 맡게 된다. 오는 3월 착공하면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거쳐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약 23억 원으로 추산되는 총건축비 가운데 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적립됐고 약정액까지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의 교계 모금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 새 사옥은 곧 완공될 것이다. 그러나 완공된 새 사옥이 건물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지역 교계·성도들의 기도와 봉헌으로 마련된 새 사옥에 자리를 잡은 강원CBS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명실상부하게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 될 때 사옥 신축의 의미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글. 김동욱
(강원CBS 총무국장)



고 그러던 이 날 칠전동 부지는 같은 조건에 기적처럼, 거것 말처럼 매각됐다.

사옥 신축 모금방송에도 은혜롭고 눈물겨운 사연을 담은 헌금이 답지했다. “CBS 방송이 북한과 중국까지 들리게 해 달라”며 건축 헌금을 들고 가평에서 찾아오신 노(老)장로님, “강원CBS 방송 덕분에 가정이 회복됐다”며 결혼 예물을 팔아 건축 헌금을 마련했다는 가정주부, 남편의 오랜 병수발을 한 감사선물로 남편에게서 받은 금목걸이를 건축헌금으로 가져오신 권

▶9면에 이어서

2명이 사망했으며, 아마존주와 리우 데자네이루주 그리고 히오그란지두 술주에서도 발병하여 보건부에서는 대대적인 전국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열병으로 온 주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더니 이제는 없어졌던 병이 돌아와 불안감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백신을 불신하는 것과 의사를 믿

지 않는 것이 내 아이에게 최선일까 하는 점입니다. 선택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지만 백신을 꼭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꼭 맞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위험이 감소하는데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해 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카더라.라는 통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홍역은 우선 바이러

스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의 강도가 매우 높은 질병으로 마치 빛해 전 발병했던 메르스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역 감염 환자와 접촉 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90% 이상 발병하게 됩니다. 물론 홍역이 발병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강한 법정 전염병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홍역 백신을 비롯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은 가능하면 모두 반드시 맞음으로써,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 및 전파를 막아 전염병을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병일 원장
(나눔성결교회 장로, 우리소아과)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열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춘천기독교연합회(김종익 목사) 주최로 3월 1일(금) 저녁7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춘천의 교회가 연합하여 기념 예배를 올리드렸다. 수석부회장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의 사회, 순복음춘천교회 찬양단의 예배찬양과 부회장 심의섭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이어 서기 최재훈 목사의 로마서13장 1-7절 성경말씀 낭독이 있었고, 순복음춘천교회 시온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은후, 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인사말씀과 감사 소개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박용규 교수(충신대학교 역사신학)께서 "3.1운동과 기독교 국가관"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축사의 말씀과 증경회장 박상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봉헌찬양이 있었다.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 춘천복회자연합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은 후, 조정일 장로(광장감리교회, 춘천홀리클럽 회장)의 만세삼창이 있었다. 애국가 제창이 있은 후, 총무 김수일 목사(감사장로교회)의 광고, 직전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용규 교수의 강의는 본 호 특집에서 정리되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개최



강원미래발전포럼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지난 2월 25일(월) 오후2시~4시에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술포럼 사회는 이규영(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 1은 "3.1운동의 사상사적 배경과 함의"란 제목으로 손승철 교수(강원대 명예교수, 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가 발제했다. 손교수는 "3.1운동의 사상적 배경과 문화를 통한 민족운동"에 대해 말했다. 주제2는 "강원지역의 3.1운동과 문화를 통한 민족운동 - 한서 남궁역의 사례"란 제목으로 김동정 교수(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민족성과 주체성으로 일어난 3.1운동의 현대사적 의미와 메시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3은 "3.1운동의 관점에서 본 오늘날 한-일관계: 진단과 전망"란 주제로 이재춘 전 대사(전 러시아 대사, 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가 발제했다. 이 대사는 "3.1 독립정신의 기본으로 돌아가 미래지향적인 국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4는 "3.1운동의 역사적 함의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노력"이란 제목으

로 이상우 전 총장(한림대, 현 신아시아연구소 소장)이 발제했다. 이상우 전 총장은 "3.1 만세운동은 국민 처음으로 갖게 된 국민적 결단의 표출이었다. 다양한 시각에서 되짚어 봐야하는 민족 운동이다. 북한에 거주하는 2500만명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고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동포애'에 기초한 통일 구상해야 한다" 말했다. 본 학술포럼은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와이신텍이 후원하였고, 강원도민일보가 협찬하였다.

춘천홀리클럽 제2회 방문예배



춘천홀리클럽(조정일 장로)에서는 제2회 방문예배를 3월 3일(주일) 오후7시30분에 석사감리교회(손학균 목사)에서 드렸다. 이날 강사는 김복한 목사(탈북민교회)가 초빙되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방문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본 호 통일란에 정리되었다.

밀알선교합창단 창단예배



지난 3월 2일(토) 오후2시 밀알선교합창단 창단예배가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있었다. 뉴욕 호치민동 전 세계 31개 지회가 있는데, 32번째 지회로 춘천밀알선교합창단(한진희 단장)이 창단되었다. 밀알선교합창단은 1년 2번 찬양 축제가 10월에 뉴욕카네기홀에서 있고, 7월에는 찬양대행진이 각 선교지에서 있다. 본 합창단 춘천지회는 매주 1회 화요일에 모임을 갖는데, 현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7390, 010-5685-5612)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제18차 정기총회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이사장 이수형 목사, 지회장 박상철 목사)는 2월 15일 순복음춘천교회 새가족실에서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제18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예배와 총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임원선출에서는 이수형 이사장, 박상철 지회장, 박용배 총무를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2019 세계기도일예배 개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세계기도일위원회 춘천지역 기도회가 2019년 3월 8일(금) 오전11시에 춘천중앙성결교회(장기동 목사) 드림홀에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란 주제로 열렸다.

봄학기 외국인들을 위한 바자회

봄학기 '외국인을 위한 바자회'가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효자교회 식당에서 열렸다. 본 바자회는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의 주최로 새학기가 되어 춘천에 오는 유학생들과 원어민 교사들,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하여 그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동시에 낯설고 외로운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87차 춘천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개최



제87차 춘천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3월 11일(월) 오후7:15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사회에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 대표기도는 백부열장로(신성교회, 홀리클럽사무국장), 특송에 20여명의 그루터기 챔버오케스트라가 은혜롭게 연주했다. 설교는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이 규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가 전해 주었다. 이사야40장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사람도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복음통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야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 이병철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김원중 목사(춘천우리교회)의 축도로 은혜가운데 마쳤다. 88차 모임은 4월 15일(월)에 가지며, 강사는 탈북민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미란 전도사이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개최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지난 2월 25일(월) 오후8시에 석사교 하천 공연장에서 있었다. 이날에는 김용도 목사(푸른초장교회)의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잠15:23, 암8:11~13)"라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고, 이후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쳤다. 3월 모임은 25일(월)에 열린다.

취재 / 사진 이은정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출리클럽 (출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박수일 셋째 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현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출리클럽)

춘천출리테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시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지휘자)

목회자 주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쪽구장
문의 : 010.5596.3702(홍우 최재영 목사)

행복재가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욕육(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동행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춘천성시합창단 단원 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강리교회
문의 : 010.2529.6193(이기영 단무장)

교회음악 (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효자동 주민센터(부안초 근처)
시몬피아노 교습소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 아침 7시30분
장소 : 대동거리탁구(후평1단지 시장 입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춘천말앞선교합창단 단원모집

대상 : 찬양선교의 뜻이 있는 분
일시 : 매주 화 저녁6:30
문의 : 010.7390.0448 / 010.5685.5612

춘천성시무용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60.5330(지도 김귀선)

월문산악회 (기독교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상행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옆)
문의 : 010.3585.3620(이영규 목사)

춘천주빌리동일구국기도회

일시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7:15
장소 : 주향교회
문의 : 010-6254-3162

교역자 축구선교회 모집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지용찬 목사)

춘천동일광장기도회

일시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8시
장소 : 석사교 하천무대
문의 : 010-8377-5373

부르심의 한소망

강원CBS사옥(선교센터), 우리 손으로 세웁니다!

강원CBS사옥 건축은 오랜기간 계속된 성도들의 영원이었습니다.
강원CBS사옥은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기관으로 무엇보다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비전을 품고 지어집니다!

교회별 헌금, 개인별 헌금 자동이체로도 월정액 신청 가능합니다.
한평 헌금 (평당 400만원)
한마음 헌금(한구좌 100만원)
벽돌 헌금 (한장당 1,000원)
[온라인 입금 안내]
(재)강원씨비에스 신협 134-002-629711 / 우리은행 027-272202-13-101

강원 CBS www.gwcbcs.co.kr



문의: 033.255.2155 (강원CBS 총무국)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 가천중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권해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유민 권희자
권혜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매순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숙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성숙 김성수 김성희 김수일 김수정 김숙희
김숙덕 김순희 김순희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선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용배 김용기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점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숙 김종숙 김종찬
김종희 김주영 김주희 김지영 김준희 김준희 김태규
김학자 김현주 김형욱 김혜란 김화본 나정희 남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류현규 문현숙
민경원 민병일 민병일 박갑술 박건섭 박근화 박근희
박노향 박연남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병화 박상준 박상희 박선옥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종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현 박창범 박춘자 박말삼 박혜성
박 최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백광일 서경숙 서요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성숙자 성관경
성화숙 손민규 손임숙 손학교 송갑수 송미화 송수경
송영인 송정선 송정근 신경자 신규호 신남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교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유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환 심효선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경주
엄송출 엄정화 엄은희 오성남 오재영 오홍금 오혜중
유영옥 원병열 원선미 원예숙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식 유용규 유재란
유정희 유정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유금숙 윤기훈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숙 오홍수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원 이종현 이영순 이무식 이은희 이은희 이이경
이미숙 이미영 이병일 이병일 이병철 이복춘 이봉연
이상숙 이상임 이상도 이상숙 이상영 이숙희 이순옥
이승희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원래 이원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재준 이재선 이정미 이종원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훈순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현아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수경 임순희 임병용 임우선
임요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용 장기명 장소영 장소영
장지원 장진순 장정순 전문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서 정미경 정복래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민
정충순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진호 정지용 정현우
조경태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상규 조성경
조소현 조영숙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영호 주신자 지문성 차재욱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민서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섭 최옥순 최운영 최은숙 최은순
최은영 최인숙 최재중 최정라 최종태 최종인 박광희
피중호 하윤옥 한명수 한순록 한원순 한정순 한정자
한희선 한희현 함종현 허 엄 하순영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준배
홍택기 홍혜원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성숙
황태홍

후원교회

-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샘영문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망성결교회 새천교회 석사강리교회 소망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복교회 신성강리교회 아이교회 영마오교회
예사영교회 예수촌교회 옥산모침례교회 은누리교회
우두강리교회 주의교회 주찬영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동무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강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물성교회 화목교회
열등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 JDM 춘천와이신협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갤러리 베드로신교센터 월드비전 설곡신기도원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033-256-1260)